



김호령
홍건희

전반기 MVP

왼쪽부터 홍건희·김호령.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쓰여졌던 KIA 타이거즈의 전반기. 가장 핫한 선수는 누구일까? KIA의 이대진 투수 코치와 홍세완 타격 코치에게 각각 가장 눈에 띄는 야수와 투수를 꼽아달라고 부탁했다. 투수 코치 입장에서 꼽은 야수 최고의 수훈선수는 김호령, 타격 코치가 본 마운드의 빛나는 별은 홍건희였다.

이대진 코치는 “우리 (투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호령이 최고의 선수였다”며 말실 없이 김호령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코치는 “작년보다 타격이 좋아지는 등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 수비에서도 투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수비 하나라도 많은 역할을 했다”며 “경험을 토대로 발전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다.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해서 리그를 대표하는 외야수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수비실력의 김호령은 단연 투수들이 사랑하는 야수다. 올 시즌에는 타격까지 일취월장하며 톱타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투수 형들이 많이 예뻐해 주신다”며 웃은 김호령은 “작년에 비해 또 생각했던 보다 전반기에 잘 치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정준의 공을

KIA 이대진·홍세완 코치 선정

‘최강 수비’ 김호령 타격도 일취월장... 톱타자 역 완벽
홍건희 선발·중간·마무리 전천후 활약... 제구 좋아져

김호령

“첫 풀타임... 체력관리 잘해
수비·공격 모두 발전할 것”

홍건희

“구위 좋아지니 정면승부 자신
하반기 불배합·타이밍 승부”

잡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렵게 쪼갰지만 잡실 두산전에서 동점 홈런을 친 것도 잊지 못한다”고 전반기기를 돌아왔다.

잘 달려왔던 전반기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모습. 김호령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반전을 위한 시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호령은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힘들니가 밸런스와 타이밍 등이 좋지 않았다. 어떻게 타석에 서있는지 모를 정도로 좋지 못했다. 2년 차인데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는 만큼 이 부분이 어렵다. 올스타 브

레이크 때 잘 쉬고 체력 보충해서 하반기 준비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해서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발전된 모습을 보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세완 코치는 “선발, 중간, 마무리에서 역할을 잘해줬다. 스피드도 있는데 컨트롤이 좋아진 모습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더 좋아질 것 같다”며 홍건희를 전반기 투수 MVP로 꼽았다.

홍 코치는 “볼로도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 타자들의 방향이를 끌어내 파울로도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언급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타자들이 빠른 볼에 타이밍을 맞추고 승부를 하는데 느린 변화구를 보여주면서 타이밍 싸움을 하면 더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마무리, 필승조, 이제는 선발투수로 뛰게 된 홍건희에게도 의미 있는, 성공적인 전반기였다.

홍건희는 “순식간에 전반기가 지나간 것 같다. 시즌 초반에 내가 불론 세이브를 던졌다면 팀이 승리를 더 챙길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면서도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첫 선발승도 하는 등 기분 좋은 전반기였다”고 말했다.

또 “구위가 좋아지면서 정면승부를 하게 됐다. 정면으로 승부 해도 구위에서 상대가 밀리니까 자신감을 얻게 됐고, 이게 다시 스피드로 연결된 것 같다. 전반기 잘했지만 긴장을 놓을 틈이 없다. 후반기에는 타이밍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빠른 변화구가 많이 맞아서 커브를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선발로 뛰는 만큼 수 싸움도 해야한다. 불배합, 투구폼 등으로 타이밍 싸움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지완 올스타 홈런왕 도전



오늘 홈런레이스

지난해 올스타전 홈런레이스 우승자인 황재균(롯데)과 준우승에 머문 에릭 데이비스(NC)가 올해 또 한 번 장외 화력 대결을 벌인다.

KBO는 15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타아rena에서 열리는 2016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인터파크 홈런레이스에 참가할 선수들의 명단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홈런레이스는 한여름 밤 거포들의 시원하고 통쾌한 아치로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올스타전 행사의 백미다.

드림 올스타(두산 삼성 SK 롯데 kt)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인 황재균을 비롯해 최형우(삼성), 이재원, 정의운(이상 SK)이 맞붙는다. 나눔 올스타(NC 넥센 한화 KIA LG)에서는 작년 준우승자인 데이비스와 나지완(KIA), 윌리 로사리오(한화), 루이스 히메네스(LG)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홈런 부문 상위권에 포진한 데이비스(1위), 히메네스(공동 2위), 로사리오(4위), 최형우(공동 5위), 정의운(9위) 등 거포들이 대거 출전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홈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펼쳐지는 퍼펙트 피쳐 대결에는 드림 올스타의 투수 정재훈(두산)·박희수(SK)·김재윤(케이티), 야수 오재원(두산)·강민호(롯데)가 나선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투수 핵터 노에시(KIA)·신재영(넥센)·송장식(한화), 야수 나성범(NC)·채은성(LG)이 출전한다.

퍼펙트 피쳐는 1인당 10개의 공을 던져 홈 플레이트에 세워진 총 9개의 배트를 쓰러뜨리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예년과 달리 팀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16일 열리는 번트왕 대결에는 드림 올스타에서 허경민(두산), 김문호(롯데), 박경수(케이티), 메릴 켈리(SK), 심창민(삼성)이 출전하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백용환(KIA), 김하성(넥센), 이용규(한화), 임창민(NC), 신승현(LG)이 나선다. 번트왕 대결 역시 팀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올스타전 첫 출전 핵터 “퍼펙트 피쳐가 뭐냐?”

덕아웃 T 특·톡

▲미안했다

앞선 부진이 미안했던 베테랑이다. 타이거즈 선수로 처음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선 12일 블론세이브를 기록했던 임창용이 지난 13일 SK와의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다. 1998년 9월24일 광주 쌍방울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이후 타이거즈 선수가 되어 기록한 첫 승. 임창용은 이날 3-3으로 앞선 9회 등판해 무실점으로 1이닝을 처리한 뒤, 9회말 김원섭의 끝내기 안타가 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신인 선수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승리를 기뻐한 임창용은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다. 첫 타자 내보내고 나서 작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견제도 많이 했다. 후배들이 잘 쳐줘서 이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빠 더 열심히 할게

야수 최고참 김원섭이 1군 복귀 후 처음으로 13일 SK전에서 2타 1·2루에서 SK 문공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때려냈다. 자신의 1000경기 출장 날이었던 지난해 7월28일 SK전 끝내기 스리런 이후 첫 끝내기. 김원섭은 “구위가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다. 감동받아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선구안, 끈질긴 승부인데 시즌 초에 삼진도 많이 당하고 좋지 못했다. 무조건 삼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 운 좋게 안타가 됐다. 간절함이 통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섭은 경기장을 찾은 아이들과 나란히 서서 장내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장내 아나운서 이슈의 응원 메시지 부탁에 “아빠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한 딸 희원양. 이에 김원섭도 “아빠 더 열심히 할게”라며 웃음을 보였다.

▲그게 뭐야?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된 KIA의 ‘신입 외국인 선수’ 핵터. 그는 15일 퓨처스 올스타전이 끝나고 진행되는 퍼펙트 피쳐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펙트 피쳐는 1인당 10개의 공을 던져 홈 플레이트에 세워진 총 9개의 배트를 쓰러뜨리는 이벤트.

소식을 들은 핵터가 “퍼펙트 피쳐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올스타전 선배인 브렛 필이 “홈 플레이트에 세워놓은 배트를 맞추는 것이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

▲돌아올 선수들이 변수다

KIA는 14일 SK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83경기를 치르고 반년을 돌게 된 김기태 감독은 “(시간이) 빠르다. 선수들 고생 많았다. 선발진 부상이 변수가 됐는데 홍건희, 김호령 등이 잘해줬다. 기억에 남는 경기들도 많다”고 전반기기를 돌아왔다. 또 “돌아올 선수들이 돌아오는 게 후반이 변수다. 투수들이 잘해줬고, 야수들 방망이도 좋아졌다. 첫 시리즈부터 롯데를 시작으로 NC, kt SK 등 중요한 승부를 해야 한다. 준비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톰랭커 불참 골프, 올림픽서 퇴출 될수도”

바호 IOC위원장 경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톰랭커들이 대거 불참하는 골프에 대해 올림픽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토마스 바호 IOC위원장(사진)은 14일(한국시간) AP, AFP통신 등 인터뷰에서 “골프선수들의 (불참)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은 톰랭커들의 불참은 올림픽에서 골프의 미래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는 1904년 이후 112년 만에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지만, 개막을 앞두고 정상급 선수들이



이따라 불참을 선언했다. 이 선수들은 지카 바이러스, 치안 불안 등을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골프는 이번 대회를 포함,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남는다. 하지만 2024년 올림픽 정식 종목은 내년 IOC 총회에서 새로 정한다.

바호 위원장은 “최고의 선수가 얼마나 참가하는지는 정식 종목으로 남게 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대회가 끝나면 국제골프연맹(IGF)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